

66歲에 행정학석사 학위 取得

김명학씨,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서



6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57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9년만에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김명학(66·사진)씨는 석사학위 취득 소감에 대해 "그동안에 어려웠던 일들이 한순간의 만족감으로 사라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도부의 고품질 한우 광역브랜드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김 씨는 경기도 북부 7개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광역브랜드개발 연합사업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것은 김 씨의 논문이 경기도 북부 7개축협 연합사업팀이 광역브랜드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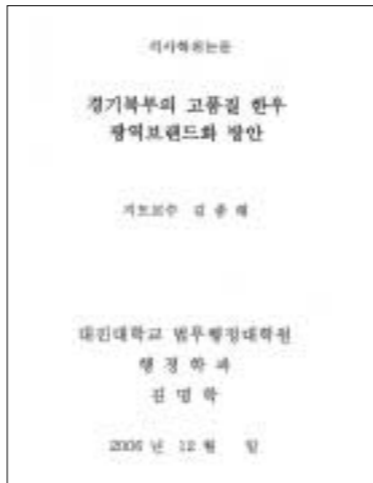
이 논문에서 김씨는 경기도 북부 고품질 광역브랜드의 활성화 방안으로 ▶고품질의 우수한 송아지 확보 ▶품질인증제, 생산실명제, 리콜제로 서비스 제공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개성 있는 제품 생산

▶각종 인센티브 제공 ▶생산지 표시의무화로 소비자 신뢰구축 ▶다양한 유통경로로 판매 활성화 ▶홍보 및 광고 강화 ▶실문조사로 소비자동향 파악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같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북부지역 6개 축협이 하나가 되어 사업감으로 이 사업을 추진 할 때 한우 광역브랜드사업은 성공할 것이고 이 길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가장생활을 하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 짧은 교수님들의 시각, 어린 동료 학생들의 시각 등 어느 하나 자유로운 게 없었다"며 "과정을 마치니 기본은 상당히 좋다"고 밝혔다.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부담요소가 한 없이 아니라며 좀



쉬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밝히는 김씨는 "사람으로 우애와 화목을 정직과 근면함으로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자"는 가르침으로 부인과 군대에 간 아들과 함께 신복면에서 살고 있다.

김명학 기자 best114@paran.com

소홀배드민턴 클럽 자체대회 성료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의 계기 마련



소홀 배드민턴 클럽(회장 박안목)은 3월 11일 동료들에 위치한 체육관에서 봄철 자체대회를 개최했다.

포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 30여명과 소홀 배드민턴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개회식에서 양호식 포천시 연합회 회장은 "자체대회를 통해 회원 분들의 친목과 단합의 계기로 건승하기를 기원하며 실력 향상은 물론 품격 있는 명문 소홀클럽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회식 후 소홀 배드민턴 회원

들이 준비한 점심식사를 한 다음 경기를 시작했으며 이날 경기결과 - 양쪽 ▶A조 이만철 노경범 ▶B조 현재종 이석호 ▶C조 이해숙 함경민 ▶D조 이은미 김강민 ▶행운권 추첨으로 배드민턴 라켓 주인공 ▶김만세 ▶정석수 등이다.

한편, 소홀 배드민턴 클럽 새벽반은 5시30분부터 오후반은 4시부터 저녁반은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항상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dmsra823@hanmail.net

운남보이차 포천에서 구입가능

14종 보이차 전문점 자향 문 열어

보이 차 이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보이 차 전문점 자향(대표 : 황우연)이 3월15일 포천시 소홀읍 이동교리에 오픈했다.

중국 운남성 름강시 윈시엔에 소재한 지아무차 유한공사와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수입된 보이 차(14종류)를 이젠 편하게 마실 수 있게 됐다.

차의 맛과 향은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것이 아니라, 차의 뛰어난 성분과 약리성의 우수함은 수많은 국제 차 학술대회에서 계속 증명되고 있다.

이날 문을 연 운남보이차 전문점 자향 황우연 대표는 "보이 차에 대해 3년 동안 준비한 각고한 노력 끝에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차를 드실 수 있도록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운남성 해발 1800m 고산지대에서 자란 보이나무에서 채취한 보이 차는 맛이 으뜸이며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차로 유명하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차도 취급하고 있다.

문의:011-9750-1883
정병길 기자 jpk61@paran.com

Essay

노장들의 흥겨운 민속놀이

열 살 미만의 어린 소년시절을 6·25란 험난한 전쟁 속에 고향을 겪고 전쟁이후 폐허 속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비참한 세월을 거쳐 성장하며 생활과 학업은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험준한 고비를 넘고 넘어 오늘의 사회기반이 이만큼 께도 오른 것은 철심 고령이 눈앞 고지에 와 있는 인생공로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물질 풍요시대가 있는 것이 아닐까?

고된 세월의 흔적만이나 모든 이들의 얼굴에 새겨진 훈장 같은 깊은 주름살이 오히려 장엄 보인다. 아직은 일선에서 퇴보하지 않은 강한 힘도 남아 있음은 평균수명 80세를 바라보는 고령 사회에 활기찬 청년시대가 되고 싶다.

추수 뒤 일동성함도 보내고 정초를 맞아 43년(계미년)생들의 부모모임에서 민속놀이 율판이 벌어졌다.

율가락이 던져 질 때마다 아슬아슬한 승부욕 함성이 고도리 산

골을 뒤흔들 것 같다. 너나 없이 즐거우니 오가는 술잔에 깊은 정답은 넘치는 술잔만큼이나 웃음이 넘쳐난다. 승자는 또 다른 승자와 몇 번을 이겨야 근사한 포장 속에 몸을 감춘 상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상품의 가치가 중요하겠는가? 한 자리에 모여 흥겨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오늘의 여유에 만족하고 수심년지기 정다운 벗들과 보내는 마음의 풍요에 감사할 따름이다.

죽은 나무 던지기에도 묘한 승부욕은 마음먹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결정되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의 오묘함에 매료되는 것 같다.

마냥 흥겨운 속에서 최종의 승자에게 뜨거운 박수와 술잔의 세례는 한바탕 축제 분위기다.

더불어 환하게 비친 창 밖의 눈보라는 천상에서 내려주는 하얀 꽃잎이 되어 환상의 풍경을 제공해주니 나이가 상관없이 환호하며 즐거운 모습은 어린 동심

이 보면 울고 가겠다.

피할 수 없는 분위기에 동동 주 한 잔 마셨으니 양팔을 벌려 눈보라 속에 날개를 펴니 그 순간만큼은 아름다운 여인이고 싶었다.

소리 없이 보내버린 고뇌의 세월을 저만치 먼 곳으로 날려보내고 부양가족의 책임도 재물을 다 했으니 정다운 이웃과 오랜 친구들과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점에서 용기 있게 서 있도록 자부하고 싶다.

남아있는 세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인생 순리 따라 조용하고 평안히 살아가라는 생각에 마음을 실어본다.

흥겨운 시간이지나 다음 만날 시간들을 약속하며 돌아오는 길에 어느새 눈발은 가시고 환한 오후의 햇빛이 정겹게 비치고 있다.



윤순옥
포천의제21협의회대표

자유기고

소홀읍 제3기 노인대학 입학식

곱게 차려 입으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입학식에 들어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새롭다.

입학식은 11시부터인데 9시30분 이전부터 100여명이나 되는 노인대학 입학생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이셨다 자리가 모자랄까봐 조바심을 했지만 미리 정해진 인원이라 모자라진 않았다.

여기저기 웅성웅성 대학이라는 설레임이었을지 모두다 밝은 표정이었다. 할머니들이 100여명 할아버지가 22명 정도 되었는데 이성호 학장님께서 존칭은 생략하시고 이름을 부를 때는 벌떡

일어서시는 분, 수줍어서 작게 대답만 하시는 분, 뒤에 서서 바라보니 좀 재미있다. 세상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과 함께 10년 후면 나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고 얼마 남지 않은 노후를 걱정해 보았다.

각 동네 이장 분들께서 세 분씩 추천 받아 모이신 분들이며 1회 2시간 강의와 1년을 64시간 이상 약 34주~32주간을 참석하셔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 강의시간은 중간 간식 시간도 있으며 매회 강사님들이 다른 분들이 오시니 빠지시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 확장님은 크게 말씀하셨다.

식순 마지막에는 나의 살던 고향과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하셨다. 노인대학 건립을 시장님께 건의하셨다고 하시며 노인들 간식 거리를 어느 독지가라도 후원 해주셨을라고 바라는 눈치였다. 바쁘신 중에다 각계 단체장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장옥자
주부명예기자단이사

자유기고

건강과 웃음 주는 '노인 운동 지도사'

웃으면 복이 운대요~ 우리 한번 서울 구경할까요. 시골명감 처를 타는~~ 노래의 시작으로 박장대소를 하며 율요음을 출발하는 저는 율요율이 많이 기다려 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잘 할 수 있을꺼하는 두려움으로 아침을 연다.

이제 3개 월째 접어드는 나의 웃음치료 시간. 맨 처음의 떨림으로 중간중간 탐이 생겨 어색한 기분도 많았지만 지금은 같이 웃으며 여유로움을 갖게 한다.

오늘은 10여분 그전에는 20여 분이 왔다 갔다 하는 어르신들이지만 웃음까지 열게 된다.

강의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노인 운동 지도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해 서울 교육원으

로 아침부터 향하는 자신을 볼 때 정말 배움은 용기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열정을 갈게 한다.

그곳의 열정 또한 대단하다. 목포에서 구미에서 대전에서 모두 열정 속에 파묻힌 그들의 모습에 나 또한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생각을 한다.

처음으로 '노인 운동 지도사'라는 과목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서 새로운 것에도 도전하는 아름다움도 알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까지 열심히 배우고 닦을 생각이다.

'노인 운동 지도사'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관리론, 노인상담론, 노인운동처방론의 이론수업과 요가, 명상, 단전호흡, 기체조, 스트레칭, 필라테스, 제저 사이즈, 실버건강체조(땀체조), 장수춤(우리춤 체조), 건강댄스 스포츠, 전신경락마사지,

귀반사 및 발 건강관리, 건강태극권, 장구 및 민요, 노인 레크리에이션 및 웃음치료, 노인치매예방체조, 생활체조, 실버워킹댄싱, 노인운동특화체조 등의 다양한 실기과목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운동을 좋아하고 밝은 미래와 즐거운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도전해보기에 좋은 교육과정이라 생각한다.

무엇이든 도전하면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웃음을 주는 전도사로 어르신들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지도자로서 우뚝 서 있는 모습 기대하며 오늘도 환한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본다.



김순연
주부명예기자단
내년기자부장

장승훈의 야구 이야기 ③

안녕하십니까? 멋진 타격을 위하여는 자신에 적합한 배트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배트를 잡고 타석에 위치하여야 투수의 공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투수가 마운드에서 포수미트를 향하여 던진 공을 날카롭게 타격하여 공략하기 위해서는 배트 잡는 법이 중요합니다.

>>> 배트 잡는 요령

- 배트를 잡을 때는 최대한 편안하게 잡아야 합니다.
-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배트를 날카롭게 정확하게 휘두르지 못합니다.
- 어깨 라인을 땅과 평행이 되게 합니다.
- 양쪽 눈은 확실히 투수를 쳐다봅니다.
- 왼쪽 어깨에 닿을 정도로 턱을 끌어올립니다.
- 왼쪽 겨드랑이를 벌리지 않습니다.
- 무릎은 조금 안쪽으로 놓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합니다.

>>> 스트라이크 존

홈플레이트의 폭(43.2)과 연장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다"

선상의 공간에서 타자가 공을 치려고 하는 순간 무릎보다 높고 어깨와 벨트 중간선보다 낮은 공간이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물론 타자의 키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은 달라집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는 공 하나 정도로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타석에서는 것이 좋습니다.

우수한 타자는 정확한 스트라이크가 되는 공을 치고 나쁜 공에 속지 않으므로써, 상대편 배터리의 싸움을 유리하게 이깁니다.

이렇게 순간에 훌륭한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 훈련으로 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구경기에서 한순간 잘못된 판단의 결정으로 경기를 망치고 패하듯이 우리네 생활 속에서도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여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문의 : 011-242-0869



장승훈
포천야구협회 회장

웰빙 부사의(不思意) 권위(權威)

권위(權威)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권위주의(權威主義)란 말도 들어봤을 것이다. 또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는 말도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권위'란 무엇이며 또 권위와 '권위주의'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권위란 절대(絕對)를 말하는 것이다. 오소리티(authority)를 말하는 것이다. 절대란 '상대(相對)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가 끊어진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 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하나는 인간 사이에서 말하는 절대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에서 말하는 절대이다.

'자연의 관점(觀點)'에서 볼 때 인간 사이에서 말하는 절대 는 절대가 아니다. 인간 사이에서 보면 절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을 다스리는 섭리(攝

理)를 놓고 보면 절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말하는 진리(眞理)를 놓고 보면 절대(絕對)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하는 절대(絕對)는 진리가 말하는 절대(絕對)가 아니라 말이다. 그것은 인간 사이에서만 통하는 절대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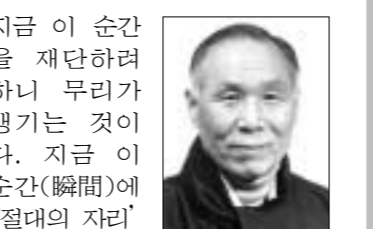
인간 사이에서 말하는 절대 는 상대적(相對)인 것이다. 여기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永遠)하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가 있으니 '하나'일 수 없고 상대가 있으니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순간은 정상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은 상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의 진정한 의미는 시간(時間)과 공간(空間) 차원에서 상대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공차원(時空次元)에서 상대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 대적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가 아니다. 권위가 아니다. 그것이 영원(永遠)해야 한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선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공차원을 말하는 것이다. 영속성(永續性)을 말하는 것이다.

권위란 이처럼 '절대의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절대 의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 위주의는 그게 아니다. 권위주의 는 '과거 한 때' 절대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절대 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 한 때' 절대의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 하나로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석권(席捲)하려 하는 것이다. 한 때는 통했으나 지금은 안 통하는 것이다.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을 재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권위주의(權威主義)이다.

한 때는 통했으나 지금은 안 통하는 잣대를 가지고 석권하려 하니 우리가 생기는 것이다. 한 때 절대의 자리를 지켰다 해서 지금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부리니 우리가 생기는 것이다. 영속성이 없는 잣대를 가지고



이규임
전국행정대학원원장

자유기고

경기도 축구협회장기 대회

등이 따끈따근하게 느껴지도록 진한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넓은 운동장에 아이들이 외침소리가 허공을 가르고 있다.

여기저기서 축구시합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난 포천중학교와 덕계중학교 경기를 보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흥분(興奮)의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한 순간도 정지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한다. 그래서 풍화작용(風化作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멈춰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절대의 자리, 권위의 자리는 이처럼 어려운 것이다. 권위주의는 배격(排擊)하되 권위는 존중(尊重)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지

켜보며 손과 입이 아프도록 외치 고 또 외쳤었지 "가산초 파이팅! 조금만 더 힘내자." "한 골만 더" 등 운동장 한가운데서 시작을 알리는 호각소리와 함께 아들이 찬공은 저 멀리 서있는 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골인이 되었고 그 골에 힘입어 합성소리와 함께 힘차게 공을 차던 열한명의 아이들...

그 많지 않은 아이들이 서로 일심동체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며 발을 맞추고 하여 전국에 그 많은 초등학교를 제치고 우승의 꿈은 이루지 못했어도 8강에 들어갔던 가슴 뿌듯했던 그때 그 2005년도.

'가산초 전국8강' 조그만 시골학교에서 전국대회 8강이라는 꿈의 신화를 이루어낸 장한 아이들 있었음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지도자



김순숙
주부명예기자

구독문의
031-542-1507